

영화 <기적>

오디션 대본

-성인 남자 50대-

-영화 <괴물>의 “희봉”역을 연기해주세요.

1. 매점 내부. 새벽

오른손에 핸드폰을 쥐 채 괴상한 포즈로 앉은 채 잠들어 있는 강두.

희봉은 먹은 흔적들을 서둘러 치우고 있고 ... 남일은 잠든 강두를 황당한 듯 바라보며,

남일 : (한숨) ... 진짜 신비롭지 않냐 ? 이 상황에서 ...

남주 : 빨리 깨워. 시간 없어.

희봉 : 잠깐만 냅둬라. 앤 째잠이 눈을 붙여줘야 돼 ...

남일 : 그럼 그냥 여기 놔두구 가자. 여차피 도움두 안되는데.

남일과 남주를 잠시 바라보던 희봉, 문득 담배를 꺼내물며,

희봉 : (한숨) 니들 ... 잠깐만 앉어봐라.

힐끔 희봉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는 남일과 남주

희봉 : 니들 보기엔 ... 강두가 그렇게두 한심하냐 ?

희봉을 뺨히 바라보는 두 사람, 잠시 침묵하다가 ...

둘다 : 네

단호한 대답에 머쓱해지는 희봉. 그러나 말을 계속 이으며 ...

희봉 : 으유 ... 느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 나는 이런 좁은데서 하루 종일
애랑 같이 뼈대구 지내니까 잘 알지 ...

남일 : ... ?

희봉 : 가끔씩 강두 이 놈이 눈빛이 확 - 변할 때가 있거던 ? 뭐시랄까 ...
눈빛이 번쩍 - 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버리는 ...

남일과 남주의 썰렁한 반응에 희봉은 슬며시 말꼬리를 돌리며 ...

희봉 : ... 거시기 ... 아무튼 말 나온 김에 ! 내 평생 첩이자 마지막으루다가
니네들 붙들구 딱 한마디만 할란다.

희봉이 후래쉬 불빛을 꺼버리자 어둑해지는 매점 내부.

매점 창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빛이 어슴프레 희봉의 얼굴을 비춘다.

희봉 : 우리가 말이다 ... 이렇게 오늘날 졸지에 세균 똥 - 미리가 되가지구선
시궁창을 뽀뽀기면서 하수도를 뒤지구 다닐지 ... 불과 며칠전만 해도 상상두
못했었던 ... 응 ? 실로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안그냐 ?

뭔가 어색한 희봉, 한국 아버지들이 다 그렇듯 애매하게 옆 쪽으로 시선을 두면서 ...

희봉 : 하기야 ... 성수대교 무너질 때 떨어져 죽은 애들이나, 길가다 장갑차에 깔려 죽은 애들이나, 지하철에 불나서 순식간에 타죽은 애들이나 ... 황당하긴 다들 만찬가지여. 그러케 황당한데 그게 또 실제루다 일어나니께, 그것이 또 더더욱 황당스러운 것이여 ...

남일 : ... ?

희봉 : 하여튼 ! 이런 황당한 일들은 그저 한가지 결론밖에 없는겨 !
똥진 애들만 불쌍하다 ! 그리구 속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애미애비들 !

남주 :

희봉 : 게다가 만일 ... 진짜루 만에 하나 ... 짜진 주댕이루 할 말은 아니다만 ...
만에 하나 이번 일루다 현서를 잃게 되는 경우에 ... 니네들 강두한테
최대한으루다 잘해줘야지 절대 애한테 뭐라뭐라 그러면 안된다, 알겠냐 ?

남일 : ...

희봉 : 저번처럼 ... 너 왜 다른 집 애새끼 손 붙잡고 뛰었냐 이 병신아 ... 이딴소리
절대루 하지말라 이거여 ! 알겠어 모르겠어 ? 그런 것이 바로 이 놈 가슴에
두 번 못질하는 ...

다짐받듯 강조를 하다가 문득 말문이 막히는 희봉 ...

남일과 남주가 어느새 눈거풀이 반쯤 내려온 채 스르르 졸고 있기 때문이다.

애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희봉, 축축한 눈빛을 한 채 ...

희봉 : ... 나야 앞으로 살아봤자 ... (증얼) 니들이 평생 애를 짊어져야 되는겨 ...

피로에 가득한 한 숨을 내뿜는 희봉, 슬며시 강두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뒷 편에 앉아 있는 강두, 오래 전부터 깨어왔던 것처럼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앉아 있다 !

강두는 멍 - 한 눈빛으로 매점 창 밖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

희봉 : 왜 그러 ?

강두 : ... 보는데 ...

희봉 : ... ?

강두 : 우릴 봐 ... 아까부터 ...

매점 천장을 때리며 더욱 고조되는 빗소리 ... 강두가 보는 쪽을 희봉도 보면 ...

살짝 열린 매점 창문 틈사이로 여명이 밝아 오는 둔치 30m 전방,

괴물이 이상한 자세로 꼳꼳이 서서,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먹고 있다 !

고개를 쳐든 채 뻥히 뜨고 있는 기분나쁜 눈동자 ... 마치 이쪽을 응시하는 것 같다.

희봉 : ... !

세워놓았던 엽총을 움켜지는 희봉, 창 틈으로 총구를 살며시 내밀며 호흡을 멈춘다.

왕년에 수렵 취미가 있었는지 조준하는 자세가 그럴 듯 하다.

더더욱 굶어지는 빗줄기 ... 싸아아 - 소리를 내며 역수같이 퍼붓는다.
창 밖으로 내민 총신 위로 투두투두 - 튀어오르는 빗방울 ...
희봉의 시점으로 길게 뻗은 엽총 총구가 저 멀리 괴물의 머리를 겨냥한다.

숨죽이며 철컹 - 장전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매점 쪽으로 돌진을 시작하는 괴물 !

강두 : (버럭) 싸 !

찢어지는 총성 ! 괴물이 지르는 괴성 ! 졸다 깬 남일의 비명 !
돌진해온 괴물이 매점을 들이받는 순간 와장창 흔들리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매점 내부.
진열대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며 가족들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는데 ...

괴물은 다시 한 번 매점을 들이받으며 힘으로 밀어 붙인다.
뒤로 완전히 넘어가는 매점 ... 둔치 바닥에 쓰러져 버린다.
지옥이 아수라장 ... 뒤로 난 출입문은 지면과 맞닿아 열리질 않고,
하늘을 향하게 된 매점 유리창으로는 괴물이 주둥이를 바짝 들이민다.

순간 괴물이 벌린 아가리에 총을 대고 그대로 씹어버리는 희봉 !
꽤애엑 - 피를 토하며 몸을 뒤트는 괴물,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다.
잠깐의 정적 ... 사방에 빗소리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